삼가 감사인사 올립니다.

금번 저희 어머님(장모님) 고 박애옥님의 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던 때에, 박성구 팀장님(지도사)의 따뜻한 위로와 자상한 지도 덕분에, 매사에 결례 저지름을 줄이고, 고인의 가시는 길을 아름답고 엄숙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.

마음속 깊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.

2022.7.20.

조합원 이복희, 남편 김태수 올림